

클래식 피아니스트인 김지윤은 그녀만의 감수성과 특유의 음악적 매력으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1980년 부산에서 태어난 그녀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팬층을 확보하고 있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음악 활동을 하고 있다. 그녀는 클래식 음악회의 딱딱한 틀의 고정관념을 깨려는 시도를 언제나 하고 있으며, 그녀의 2016년 데뷔 앨범인 **10 More Minutes**는 관객과 무대에서 하는 대화를 연주에 포함한다. 그리고 두번째 앨범이었던, **Over. Above. Beyond.**는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인 신문섭 작가와 공동 작업으로 일러스트레이션과 클래식 음악을 접목시킨 작품을 선보이면서 주목을 받았다. 지금 현재 그녀는 '시음 /si-úm/' 이라는 앨범을 통해서 미국 그리고 한국 시인들과 협업해서 클래식 피아노 음악과 시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미국 전역 30개 도시 투어를 진행중이다.

그녀는 2021년 <Whenever You're Ready>라는 자기계발서를 미국에서 출간했고, 이러한 그녀의 대담한 음악가로서의 활동은 그를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주목하게 했고 그 결과 지난 7월 국내의 출판사인 다산북스에서 <백만 번의 상상>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그녀는 책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음악적 경험에서 얻은 지혜와 통찰, 자신의 삶을 공유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실패할 때마다 희망을 꿈꾸었다'고 말하는 그녀는 많은 독자에게 격려와 위로를 전하며 작가로서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김지윤 피아니스트는 4살때 피아노를 시작해서 부산대 음대 피아노과 수석 입학 및 졸업을 거쳐, 미국으로 건너가 유명한 명문 학교인 인디애나 대학에서 피아노 연주자 과정으로 석사와 박사과정을 마쳤다. 그리고 그녀의 음악을 더 소통하고자 하는 열정은 그녀를 다시 피아노 페다고지를 공부하기 위해 학교로 돌아가 버틀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전액 장학금으로 교육학 석사 과정을 마쳤다. 그녀는 2016에서 2018까지 스타인웨이 피아노에서 주최한 최고의 음악 교육자의 상을 3년 연속 받기도 했다.

다큐멘터리 제작자인 스티브 카체로 (Steve Cachero)와 함께 공동 제작한 'Over. Above. Beyond.'의 공식 뮤직 비디오는 2018년 엘에이 독립 단편 영화 어워드에서 "최고의 뮤직비디오"로 선정되었고, 또한 레드우드(RedWood) 영화제, 로마 독립 프리즈마 (the Independent Rome Prisma) 영화제, 시네 펀 (Cine Fern) 영화제에서 공식 뮤직비디오로 선정되기도 했다.

오늘날 그녀는 카네기홀 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의 챔버 음악 협회, 혹은 시카고의 스트라드 협회에서 주최하는 등의 미국 전역의 저명한 홀과 단체가 주관하는 연주들을 통해 활발히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관객과 더 소통하는 새로운 방식의 클래식 음악과 연결되는 방법들을 연구하면서 클래식 음악의 선두주자로 그 클래식 음악의 마법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20년부터 시작된 그녀의 팟캐스트인 **Journey Through Classical Piano**는 그녀가 호스트가 되어 클래식 음악에 대해 이야기하고 같이 감상하면서 그녀만의 음악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세계 전 팬들과 나누고 있다.

교육자이자 강연가로서 그녀는 MTNA (미국 음악 교사 협회), OMTA (오레곤 음악 협회), 플로리다 대학 및 미국 주요 음악 단체와 기업에 초청받아 음악교사들을 위해서 음악 경영에 대한 강의 초청 강연 및 학생들을 위한 마스터 클래스도 활발히 하고 있다.

그녀는 예술 운동가이자, 교육자이자, 팟캐스트 진행자이자, 강연가이자, 유튜버이자, 작가이자, 전문 피아니스트이다. 현재 미국 서부 샌디에고에서 거주하고 있는 그녀는 사람들이 더 클래식 음악을 더 알게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열심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며 음악을 나누고 있다. 삶의 아픔과 고독함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나무 같은 예술가, 김지윤. 홀로 남은 그 쓸쓸한 순간들을 음악으로 채워 사랑과 행복함을 만들어 낸 그에게서 깊이 있는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그렇기에 그의 음악은 머리가 아닌, 마음을 움직인다.

“그녀는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자연계의 힘처럼 관객을 빠져들 수 없는 클래식 음악의 세계로 인도한다.” -클래식 라디오 **XLNC-FM** 진행자, 고돈 브라운 (**Gordon Brown**)

“아직도 김지윤이라는 이름을 모른다면 나는 당신이 그녀의 이름을 당장 마음에 새겨 두기를 권고한다. 그녀는 그녀만의 음악적 세계관으로 당신을 끌어당기며 그녀의 음악에 귀 기울이게 하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 -**Fanfare** 클래식 음악 음반 잡지사의 비평가, 데이브 세만 (**Dave Saemann**)

“정교하고 섬세하고 아름답다. 그녀의 음악은 클래식 음악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완벽한 창문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녀야말로 우리에게 이 세상이 꼭 필요로 하는 흔치 않는 선물이다.” -**New World Youth Orchestra** 전 지휘자, 수전 키드만 (**Susan Kitterman**)